

양안(兩岸)관계와 중국정치

: 대만학자 '자오젠민(趙建民)' 교수와의 대담

서상민, 이광수*

자오젠민(趙建民) 교수 소개

현재 대만 중국문화대학사회과학원원장(中國文化大學社會科學院院長)이자 중국 문화대학 중산 및 중국대륙연구소 소장(中國文化大學中山與中國大陸研究所所長)이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行政院 大陸委員會 副主任委員), 국립정치대학국가발전연구소 소장(國立政治大學國家發展研究所所長) 등을 역임했으며, 또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객원교수, Journal of Chinese Law and Governmen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객원편집인, 미국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Duke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싱가포르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독일 University of Tuebingen 방문학자, 중국의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샤먼(廈門大學)에서의 강의 경력 등 국제 학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자오교수는 中國大陸政治發展 및 兩岸關係 문제 연구에 치중해 온 대만의 중국전문가이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趙建民, 郭國興편저의 [兩岸關係與台灣經濟:發展及策略(台北:雙葉書廊, 2015年8月)], [中國大陸高層菁英決策:領導菁英、結構、過程(五南, 2014)], [Remaking the Chinese State: Strategies, Society, and Security (Routledge, 2001)], [當代中共政治分析(五南, 1997)], [威權政治(幼獅, 1994)] 등의 단행본, 학술논문 237편(SSCI급 영문논문 21편, TSSCI 우수 중문논문 40편 포함)이 있고, 각종 국제학술회의에 100여차례 이상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 대만의 저명한 「中國研究」전문가이다.

*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A: 중국 정책결정과정 관련 질문

1. 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책결정과정 : 최근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 정권을 분석하는 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집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둘째,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의 정책결정과정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반대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외부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진핑이 반부패정책을 결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답변 : 시진핑의 정책결정방식은 개혁개방 이후의 방식과 모든 측면에서 다릅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권력은 대단했지만, 그는 반드시 당내의 실력자와 명망 있는 천윈(陳雲)과 같은 원로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집중 방식은 당내 다수의 정책결정을 위한 영도소조를 수립하여 자신이 직접 책임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임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저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와 국가안전위원회와 같이 새롭게 설립한 조직은 매우 방대한 권력조직인데, 시진핑이 이들 조직의 책임자로 나서면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방식은 1980년대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막강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치적

상무위원회의 역할과 구도를 깨는 강력한 정치적 강자를 출현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집중 원인은 공산당 내부에 총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패 척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시각이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더 큰 권력으로 도전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권력의 공고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6중전회(中央委員會全體會議)는 시진핑의 일인 권력집중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 건설’과 의식형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국가정책, 경제개혁의 진행 이후에 당건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는 이번 임기내에 어떻게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새로운 의식으로 무장하고, 당의 노선을 어떻게 새롭게 세울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주로 토론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6중전회는 2017년 11월에 개최될 중공 19차 당대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의 준비를 시작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국의 7명의 상무위원들이 있는데, 이중 내년에 만 68세가 넘는 사람이 5명이며,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 중에는 약 15명이 만68세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원교체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있을 공산당 지도부의 여름 휴가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에서 내부토론이 시작될 것입니다. 6중전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현재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당내 부패와 자본주의적 분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혁 이후 인민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현재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공평(公平)의 실현’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불안정 요소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국가가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는가가 필수문제로 부각됩니다. 셋째, 권력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지도자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력집중을 시도하려 하지만 또 다른 세력의 도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6중전회의 의의는 시진핑 정권의 2기 집권으로 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으며,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시대’가 비로소 열릴 것이며, 이는 현재와 다른 시진핑이 출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말까지 중국은 권력교체기로써, 최고지도자는 바뀌지 않지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권력교체는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업무이며, 권력에 있어서도 비교적 민감한 시기입니다.

2. 한국에서는 중국의 국내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정책결정과정과 대외정책결정과정에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대외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당지도부, 외교관료, 군지도부, 해외공관 등)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

셋째, 대외정책결정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넷째,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중국내 지식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 시진핑의 대내외에 대한 정책결정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

외적 정책결정에는 당내의 권력과 문제가 없으나,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족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집권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 국방은 남해와 동해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발언권이 있는데, 당연히 시진핑이 정책결정의 최종 결정자가 됩니다.

시진핑의 동아시아 정책은 미국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겨냥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는 상당히 민족주의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정책결정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지식인들의 싱크탱크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했으며, 시진핑의 등장 이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유일한 예외는 대만해협입니다. 중국이 현재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만은 절대로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영원히 인내하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3월에 개최된 중국의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를 보면, 현재 대만의 집정 민진당(民進黨)은 중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國民黨)의 집정시기에 ‘92공식, 일중각표(九二共識, 各自表述: 하나의 중국, 각자 표술)’ 표현을 찾아냈고, 중국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대만 관광의 확대, 3통(통상, 항공, 통신의 자유로운 교류)의

회복과 확대, 그리고 ECFA(양안경제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교류의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민진당의 집권 이후에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이 자신의 열쇠(해결방식)를 찾으려면 양안의 경색 정국을 풀어야 합니다. 국민당의 '92공식' 열쇠를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대문을 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색국면을 유지한다면 양안은 점점 더 파국으로 갈 것입니다.

3. 정책결정과정의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결정과정은 정치체제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제도화과정에 있지만 현대적 요소와 함께 과거 중국의 중앙집권제 하의 관료제의 전통 역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관료적 전통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책결정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각계각층의 이익집단이 출현하고 있어 관료체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본위(官本位)적 심리상태까지는 고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 민주국가이고, 민의가 정책결정과정에 미

치는 영향도 대륙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대중매체는 정부통제 하에 있지 않고, 정부는 끊임없이 대중의 의식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면에 대중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약하며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대만은 1990년대 민주화 발전 이후 언론자유와 정당활동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정치행위에 직접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일본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만의 중국대륙정치 연구의 동향에 대해 질문합니다.

첫째, 대만의 중국대륙정치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현재 대만의 중국정치연구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만의 중국연구자와 중국대륙의 중국연구자들과의 주제 및 방법론 등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양안 간 학자들의 교류의 특징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의 중국연구자와 대만의 중국연구자간 교류의 주요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안관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대만학자는 양안관계 연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연구, 특히 정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대륙의 경제체제, 경제정책 그리고 양안 경제무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패러다임 전환과 세대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만의 새로운 연구자들은 주로 미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전 세대 즉 오랜 경력을 가진 구세대는 주로 인적 네트워크와 문헌분석을 주로 합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연구학자는 대만

학자와 양안문제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분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B: 대만 정치와 양안관계 관련

1. 대만 민중의 정체성 변화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만에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당신이 대만인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중국인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정체성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둘째,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향후 양안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셋째, 2014년 구합일(九合一) 선거와 2016년 총통, 입법원 선거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고, 민진당이 승리한 요인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답변: 1990년대 이전 대만은 자신을 대만이라 부르지 못하고, 모두 ‘중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대만인은 당연히 중국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만을 국가 인정하지 않는 흐름과 동시에 대만인도 자신을 중국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인은 당연히 중국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대륙이 시진핑 영도하에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발전추세와 상충되고 있어, 향후 양안관계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당의 선거 패배는 마잉지우의 양안정책과 관련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력이 점차 강력해지는데, 국민들은 마잉지우(馬英九)의 대륙과 경제무역교류 정책에 대한 의구

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나는 정체성 변화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만독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중국인(혹은 대만인) 정체성, 중화문화 및 양안경제무역이익을 각기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만의 정책 도구상자는 속이 빈 상자와 같지만, 반면에 중국의 도구상자 안에는 여러 형태의 수많은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도구상자는 현재까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대만은 이미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만인에게는 이른바 ‘서쪽(중국 대륙을 의미)을 보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증세’가 있습니다. 양안문제에 직면할 때 대만인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제민항기구(ICAO)의 총회 등 국제기구에 불참하는 것을 고수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대만인은 비즈니스를 매우 잘한다는 말을 듣지만, 양안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현재 중국인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만인은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륙에게 대만에 대해서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평화적으로 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대만정책에 대해 오직 ‘호소’만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즉 대륙에게 양안의 평화는 공통의 책임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답안을 찾아야 합니다.

2. 대만 선거와 양안관계의 전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6년 총통선거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에게 300여 만표의 큰 표차로 당선되었고, 입법원도 민진당이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 11월 초 국공(國共)양당 고위급 인사의 베이징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국공접촉의 중요 구성부분인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이 ‘양안평화발전논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차이잉원 체제의 출범이후 양안관계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둘째, 향후 예상되는 대만의 대륙정책이 중국의 시진핑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향후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양안관계의 구축을 위한 자오 교수의 생각은 무엇인가?

답변: 차이잉원은 ‘92합의(92共識,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승인을 거절했지만, 문제의 대체 방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집권 하에서 양안관계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2회담의 역사적 사실을 제기함에 있어, 차이잉원의 전략은 모호한 노선을 취하면서 현재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共識)’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 측면에서 시진핑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차이잉원은 주동적으로 대만 독립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안관계도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대만의 외교공간에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교적 쓰나미 상황도 밀려 올 것입니다. 양안 협상에 대한 정부당국과의 교류도 이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중국의 정치환경과 체제의 각도에서 국공(國共)접촉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데, 대만이 대륙의 체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륙의 체제는 당정일체(黨政一體)이며, 공산당이 계통이 정책결정 및 정부집행에 대한 결정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은 공산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공접촉의 중요성이 있는데, 바로 대륙은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대만정책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용이합니다. 많은 사업이 집행 과정을 거치지만 대만사업은 골치아플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정부 부처 간의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는 '부처이기주의(部門主義)'가 있기 때문에, 대만사업 부서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공산당의 명의로 대만정책을 추진하면 각 부문은 단일 대오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2005년 이래 국공논단(國共論壇)은 국공관계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관계가 발전하였는데, 먼저 국공접촉을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점에서 국공접촉은 두 정당사이의 접촉만이 아닌 양안의 접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취임 이후 현재는 양안사이의 정부, 반관방(半官方) 성격의 접촉도 전면적으로 중단상태이며, 민간교류만 남아있습니다. 국공 양당은 민간의 각도에서 양안민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안의 관방이 교류를 할 수 없다면, 양안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의 교류가 양안의 정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현재 오로지 국공접촉이 양안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논단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양안상호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5월 20일 취임연설 이후 차이잉원은 여러 번 중국에 대해 최대의 선의(善意)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잉원이 보였다는 ‘최대의 선의’는 베이징(중국 지도부)은 ‘선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92회담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선의라고 할 수 없으며, ‘중화민국 헌법’을 말하는 것도 선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근본적으로 ‘중화민국헌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안인민조례’를 준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차이잉원이 말하는 ‘최대의 선의’는 베이징이 보기에는 매우 오묘한 것으로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대만에서 양안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차이잉원의 대응은 적합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색정국을 타파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차이잉원이 선의를 나타내 보였으니 대륙도 대만에 대해 농산물 수출 허용, 관광객 제한 해제 등의 ‘선의’를 보이라는 대만의 요구는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차이 총통의 생각도 복잡합니다. 차이잉원은 중화민국의 ‘총통’과 민진당의 ‘당주석’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신분의 역할이 양안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총통’의 역할은 (중국과의) 타협을 찾아야 하는 점이고, 그에 따라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 선의를 보이려고 하지만, 대만독립성향의 민진당의 ‘당주석’ 역할은 비교적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중국의 대만 압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항하고,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진당 내부의 각 파벌의 양안관계 입장을 고려하여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화민국 헌법’의 준수, ‘92의 역사적 사실 인정’

등 민진당이 과거에 한번도 제기하지 않은 개념을 새로이 내놓았지만, 당내의 비판과 압력, 그리고 중국의 무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이의 ‘최대 선의’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양안의 경색정국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양안사이 핫라인이 끊기거나, 연락통로가 단절된 경우에 향후 양안의 충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과거 국제적인 위기발생상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정치의 위기 관리 연구를 할 때 발견한 것은, 중대한 위기발생이 사실 많은 경우가 정세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참전한 원인은 사실 중국이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예측(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원자탄 투하를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잘못된 정세판단의 결과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안이 비록 마정부의 8년 집권동안 연락통로를 구축하였으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관방사이의 공식적인 통로는 없으며, 그 결과 단지 만남만 있었을 뿐 소통은 없었습니다.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峽會)는 공식 정부간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창구의 만남은 협상일 뿐 소통은 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7일 양안의 지도자들이 한번 만남을 가졌던 것도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정부 시기 양안의 연락통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더욱 엄중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마정부 시기 힘들게 수립한 통로도 하나씩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안관계의 미래, 정세에 대한 오관 가능성의 증가는 확실히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3.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대만 국민 다수는 통독문제에 있어서는 통일 혹은 독립이라는 확실한 태도표명보다 약간은 모호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대륙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해서 대만 지식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둘째, 대만이 지향하는 ‘현상유지(維持現狀)’정책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는가?

셋째, 마잉주 총통은 ‘활로외교(活路外交)’를 추진하였고, 차이잉원 새 총통은 ‘신남향외교(新南向外交)’를 주장하고 있는데, 활로외교의 성과는 무엇이고, 신남향외교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답변: 대륙의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대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륙경제가 신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각 방면의 발전은 여전히 대만에 비해 뒤져 있습니다. 80%이상의 대만 국민들은 일정정도 ‘현상유지(維持現狀)’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지지 정도도 매우 낮습니다. ‘활로외교(活路外交)’는 양안이 국제적 공간문제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8년 동안 대만과 국교를 맺은 나라 중 잠비아(Zambia) 만이 2013년에 단절 했지만, 대륙은 마잉주정부의 친중국 입장을 고려하여 바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되자 외교적 고립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잠비아와 정식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한편 대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차이잉원은 새로운 ‘신남향외교(新南向外交)’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및 인도와 긴밀한 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신남향외교 정책은 성공하기 어

럽다고 봅니다.

양안의 근본모순은 국제요소에서 출발합니다. 마정부 8년 동안 양안의 제로섬(zero-sum)게임이 초래하는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자 ‘활로외교(活路外交)’를 실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양보하지 않았고, 마정부의 실패를 초래함으로써 ‘녹영(綠營)’ 즉 대만독립지향 정치세력이 마정부를 비판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양안이 외교문제에서 제로섬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요구에 대해서, 대만은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국가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재정부(財政部)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안의 제로섬 외교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민진당은 향후 더욱 곤란해 질 것입니다.

4. 대만 사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만대학 지리학과 쉬진위(徐進鈺) 교수는, 대륙의 경제적 독단 및 경쟁의 폭력성과 대조를 이루면서 대만의 경제생활에서 ‘소확행(小確幸)’이라는 새로운 사조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소확행’은 원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망중한(忙中閑)에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네트워크, 인정(人情)을 소중히 함으로써 고단한 생활의 위안을 얻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사회관계가 야기하는 인간소외에 대한 본질적인 항의인데, 특히 대만의 젊은 세대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쉬진위 교수는 자급자족적인 무릉도원 혹은 유토피아 상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의미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대만 현실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확행’이 전제하는 ‘중국몽’에

대한 반감이 양안의 화해를 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오 교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답변: 소확행(小確幸)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사유가 아닙니다. 폭 넓은 국제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대만은 외교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국제적 감각도 부족하며, 야망을 위한 투지의 의지도 부족하여 그들은 대만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생활하기에도 매우 편리하여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여 고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너무 깊은 학문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안정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싶은 생각 뿐 인데, 이는 시진핑의 중국 꿈(中國夢)과 관련이 없으며, 양안과도 무관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양안의 평화를 주장할 뿐입니다.

대만인은 현재 ‘소확행’에 너무 습관화되었습니다. 외부의 세계는 매우 넓으며, 직접 뛰어들어 부딪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대만인이 조그마한 행복에 대해 만족하는데, 젊은이는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하고, 세계 각지도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 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대만의 젊은 세대는 양안문제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비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차이잉원 정부가 양안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양안문제가 비록 현재 명쾌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바로 젊은 학생들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5. 양안의 교류협력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만과 중국 대륙은 때로는 대치국면에서 충돌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양안간에는 인적교류의 성과물으로써, 30여 만명에 이르는 대륙출신 배우자(陸配), 8만 여명의 대륙 학생(陸生), 매년 수 만명에 이르는 대륙 관광객(陸客)들이 대만에서 거주하면서, 자유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오교수는 양안사이의 교류협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이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중국대륙은 그동안 대만을 매우 적대시 했지만, 민족주의 정서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인의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열강의 중국에 대한 침략을 반대했고, 또 과거 대만이 일본식민지를 경험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과 서구열강을 중국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수복은 중국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중국인이 대만을 방문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중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화의 결과로 막대한 부를 가져왔지만, 제도의 폐단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또 하나의 양질의 선택항목(選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만의 민주화 경험은 대륙에게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